

▶ 내신 기출 독서 미래엔 ◀

I 독서의 본질

- 1. 독서에 대하여 (24문제) ----- 1쪽
- 2.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55문제) ----- 13쪽

II 독서의 계획과 태도

- 1.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 (16문제) ----- 40쪽
- 2. 함께 읽기의 즐거움- 《오래된 미래》를 읽고 (7문제) ----- 46쪽

III 독서의 방법

- 1. 커피 이야기 (35문제) ----- 52쪽
- 2. 앎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26문제) ----- 73쪽
- 3.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30문제) ----- 86쪽
- 4.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탕자나무였다 (25문제)----- 104쪽
- 5.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15문제) ----- 118쪽

IV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 1.
 - *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53문제) ----- 126쪽
 - *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49문제) ----- 155쪽
- 2.
 - *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 (51문제) ----- 181쪽
 - *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43문제) ----- 208쪽
- 3.
 - *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52문제) ----- 232쪽
 - * '우리'를 위한 기술, 걱정 기술 (35문제) ----- 262쪽

V 다양한 배경의 글 읽기

- 1. 옛사람의 독서 일기 (12문제) ----- 283쪽
- 2. 외투 (18문제) ----- 290쪽

◆ 빠른 전체 정답 -----303쪽

◆ 해설 -----306쪽

교재 버전: 2021.02.20

▶ 내신 기출 독서 미래엔 ◀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미래엔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독서 미래엔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독서 미래엔 ◀

망망의 꿈 한뼘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독서에 대하여_헤르만 헤세

■ 핵심 정리

갈래	수필
성격	비유적, 주관적
제재	올바른 독서 방법
주제	주의를 집중하여 독서하는 태도의 중요성
특징	① 단호한 어조로 바람직하지 못한 당대 독서관을 비판하고 글쓰이가 생각하는 책의 가치와 올바른 독서에 관해 서술함. ② 독서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다양한 비유를 예로 들어 설명함.

■ 작품의 구성

처음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례
중간	잘못된 독서 태도 비판과 올바른 독서 태도
끝	바람직한 독서의 기대 효과

■ 독서의 잘못된 사례

	밀러 씨	마이어 씨
독서의 목적	교양을 갖추고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재미를 목적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책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김. →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	책은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세계이며 심심풀이에 불과하다고 경멸함. → 독서에 대한 과소평가



글쓰이의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독서를 해서는 안 됨. 책에 대해 뚜렷한 자기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됨.

■ 비유를 통한 잘못된 독서 태도 비판

미련한 환자	어리석은 독자
약국	도서관, 서점 등 책이 있는 곳
좋은 약	좋은 책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기	많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읽기 (남독)

■ 글쓰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

- 독자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음.
-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볼 수 있게 해 주고,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음.

■ 글쓰이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서의 태도

- 정신을 분산하지 말고, 온 힘을 기울여 책에 담긴 인간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함.
-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를 갖고, 더 풍성한 힘을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함.
-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함.
-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함.

I -1.독서에 대하여

■ 독서 태도를 비유한 표현

올바른 독서 태도	잘못된 독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에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는 마음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는 겁에 질린 학생•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

■ 바람직한 독서의 기대 효과

- 책을 집중하여 읽음으로써, 책 속에 담긴 감정에 공감하며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함.
- 사람들이 책을 적게 읽어서 작가의 책이 잘 팔리지 않고 작가들이 작품을 적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들이 독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많이 읽기보다는 공을 들여 양질의 독서를 하기를 기대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여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뮐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은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중략>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뮐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렵웃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략>

인생은 짧고,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

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 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열 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열 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림,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 헤르만 헤세, 「독서에 대하여」

가정고등학교 (인천)

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독서의 목적
 - 올바른 독서의 태도를 중심으로
- 독서의 의미
 -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를 중심으로
- 독서의 의의
 - 글쓰기와 독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독서의 방법
 - 독서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중심으로
- 독서의 가치
 - 수준 높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중심으로

가정고등학교 (인천)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독서에 관한 ‘마이어’ 씨의 생각과 일치한다.
- ㉡ : 독서를 과대평가하는 독자유형에 해당한다.
- ㉢ : 남독(濫讀)을 일삼는 독서행위를 비유한다.
- ㉣ : ㉣의 유무에 따라 질적 차이가 결정된다.
- ㉤ : 작가보다 독자가 우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려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자, 그런데 이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것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재권 한 장을 사고파는 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 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 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차피 뜯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며 ㉥내심 경멸하거나 한다.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렵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략>

인생은 짧고,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수원여자고등학교 (서울)

3.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잘못된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올바른 독서의 방법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잘못된 독서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잘못된 독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서울)

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와 달리 ㉤는 수동적인 태도로 남독하고 있다.
- ㉢와 달리 ㉤는 독서를 심심풀이로 여기고 있다.
- ㉢와 달리 ㉤는 교양을 갖추기 위해 독서를 한다.
- ㉢와 달리 ㉤는 독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 ㉢와 ㉤는 모두 주체성 없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5. 윗글을 읽고 글쓴이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글쓴이는 윌러 씨를 마이어 씨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글쓴이는 당대 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옹호하고 있다.
- 글쓴이는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글쓴이는 차를 즐기듯이 혹은 신문을 보듯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글쓴이는 마이어 씨가 윌러 씨에 비해 더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6. ㉠~㉣의 단어의 뜻풀이가 가장 적절한 것은?

- ㉠ ‘부득불’ -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게
- ㉡ ‘소일거리’ -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기 위하여 심심풀이로 하는 일
- ㉢ ‘공산’ -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
- ㉣ ‘내심’ - 겉으로 드러내 놓고
- ㉤ ‘고양’ - 품위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함

천안쌍용고등학교 (충남)

7. ㉥를 통해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교양을 위한 독서의 문제점
- 독서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점
-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의 문제점
- 이득을 따지며 독서하는 태도의 문제점
- 목적 없이 아무 책이나 읽는 독서의 문제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부분의 사람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 윌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려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편, ㉡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자, 그런데 이 윌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것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채권 한장을 사고파는 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 육체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 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차피 뜯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며 내심 경멸하거나 한다.

(나)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윌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으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남독(濫讀)은 결코 문학에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 만족으로서의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직 ㉞삶으로 이끌어 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독자들에게 불꽃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 주지 못하고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지 못한다면, 독서에 바친 시간은 전부 허탕이다.

(중략)

인생은 짧고,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㉞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㉞겉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㉞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 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열 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열 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 헤르만 헤세, '독서에 대하여'

중앙사대부고 (서울)

8. ㉞과 ㉞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㉞은 ㉞과 달리 올바른 독서 태도를 실천하고 있다.
- ㉞은 ㉞과 달리 독서의 목적을 결핍을 채우는데 두고 있다.
- ㉞은 ㉞과 달리 독서를 무리한 시간을 보내는데 좋은 방법으로 여긴다.
- ㉞과 ㉞ 모두 제대로 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㉞과 ㉞ 모두 자기 판에는 필요에 따라 독서를 하고 있다.

중앙사대부고 (서울)

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주체성 없는 독서 태도를 비판하고 올바른 독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나)는 올바른 독서 태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개인의 정서발달을 돕고 지적욕구를 충족하는 독서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 (가)의 '뿔러'와 '마이어씨'의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가)에서 잘못된 통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을 (나)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여 해결하고 있다.

중앙사대부고 (서울)

10. ㉞~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㉞ : 육체노동자가 일을 할 때는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
- ㉞ : 피상적으로 여겨지는 독서의 가치들
- ㉞ : 독서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 ㉞ : 억지로 책을 읽는 태도
- ㉞ : 자신을 지켜줄 무기를 고르는 절연하고 비장한 마음가짐.

중앙사대부고 (서울)

11.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서를 해야 합니까?
- 무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독서로써 '레나우'를 읽고, 만화나 판타지 소설을 추가해서 읽는 것은 가치 없는 독서활동입니까?
- 제대로 된 책이라면 반드시 함축을 표현한 숨겨진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 반복되는 일상과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서하는 태도는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 독서가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해야 할 활동이라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교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중앙사대부고 (서울)

12. (나)를 읽은 후, 잘못된 독서 방법을 한 문장으로 명시하고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범위에서 올바르게 실천해야 할 독서 태도를 찾아 아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을(를) 실천해야 한다.'의 문장으로 끝맺을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읽고 어느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해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은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자, 그런데 이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것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채권 한 장을 사고파는 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 만큼만 한다. 이런 사람들 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중략)

따라서, 남독(濫讀)은 결코 문학에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 만족으로서의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 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독자들에게 불꽃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 주지 못하고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지 못한다면, 독서에 바친 시간은 전부 허탕이다.

피상적으로 봐도 독서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인데, 정신을 '풀어 놓으려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독서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된 책이라면 언제나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화, 응축과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된 형태로 담겨 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불량 독자인 것이다.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하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소화해 내지도 못할 온갖 글들로 뇌를 혹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다른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상태로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 어쩌면 새로운 정보 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 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훈련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에 괴테의 명작 <친화력>이라 할지라도,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다.

인생은 짧고,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A]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 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열 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열 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 헤르만 헤세 지음, 김지선 옮김,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

<<해설>>

I-1. 독서에 대하여

2. ㉔

▶ ㉔ : 책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적은 수의 책이라도 책에 집중하여 올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함을 말함.

3. ㉔

▶ 묻고 답하는 방식은 없음.

4. ㉑

▶ ㉑와 ㉒ 모두 남독함.

5. ㉓

▶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를 통해 알 수 있음.

8. ㉑

▶ ㉑과 ㉒은 모두 잘못된 독서 태도를 지님.

9. ㉒

▶ (나)는 올바른 독서 태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적 표현(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10. ㉒

▶ ㉒ :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정한 독서의 가치들

11. ㉒

▶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독서가 아닌,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 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함.

13. ㉔

▶ 독자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없음.

14. ㉓

▶ ㉓. 독서에 대한 통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독서에 대한 통념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며 비판하는 것은 아님.

15. ㉑

▶ <보기>의 화자는 책 만여 권을 읽었기에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는 ㉑가 가장 적절함.

16. ㉒

▶ 화자는 독서를 통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교양을 쌓기 위해 책을 선택한 ㉒는 적절치 않음.

17. ㉔

▶ 잘못된 독서를 하게 되는 것은 글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18. ㉒

▶ ㉑ : 화자는 밀러 씨가 독서를 통해 교양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과대평가를 비판하고 마이어 씨가 독서를 통해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과소평가를 비판함. ㉒ : '따라서 남독(濫讀)은 결코 문학에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19. ㉔

▶ 질적인 독서의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음.

22. ㉑

▶ 잘못된 독서가 작자와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음.

24. ㉑

▶ ㉑ :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과소평가의 태도임.

I-2.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1. ㉑

▶ (나)는 (다)와 달리 시대(고대 로마, 중세, 17세기 전후 등)에 따른 개념(사랑)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3. ㉒

▶ 운영의 사랑은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임.

6. ㉓

▶ (가)는 (나)와 달리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역사적 흐름(고대 로마, 중세, 17세기 전후 등)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7. ㉑

▶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승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를 통해 사랑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음을 의미함.

9. ㉑

▶ ㉑을 통해 (가)는 남성 화자가 여성인 상대방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

10. ㉓

▶ 전전반측(輾轉反側): 걱정거리로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함.

12. ㉑

▶ (나)에서 다른 사람(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주장을 예로 들어 글의 신뢰성을 높임.

13. ㉔

▶ 운영은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이기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성으로 볼 수 있음.

14. ㉔

<<해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15.①

▶(나)에선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①은 적절하지 않음.

16.②

▶②만이 자연 친화적이며, 나머진 사랑하는 이의 부재 상태에 있음.

17.②

▶(나)는 현대 사회에서 자아실현과 사랑에 대한 열망은 같이 일어난다고 주장함.

18.②

▶'김진사'가 살던 시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가 아니기에 17세기 이전임.

19.④

▶(다)는 전문가(헬렌 피셔)의 연구를 예로 들어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0.④

▶ㄴ.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ㄷ.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21.②

▶㉠에는 신경 과학자들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주장만 있을 뿐임.

22.③

▶(나)의 글쓴이는 (가)의 '운영'에게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라 말할 것임.

23.④

▶전문가(신경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

24.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여느 감정과 구별된다.>와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를 통해 알 수 있음.

26.⑤

▶㉡ -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27.④

▶사랑하는 동안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사랑을 하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많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됨.

28.③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전적 정의와 관련된 것이지만, 글쓴이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게 되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님.

30.⑤

▶현대사회로 올수록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남녀의 모습을 요구함.

31.③

▶(나)는 (가)와 달리 '과학적 사례'(헬렌 피셔의 뇌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32.②

▶(나)에선 사랑을 표정을 보고 읽어 낼 수는 없다고 하기에 '김진사'에 대한 사랑에 대응하는 표정을 '운영'에게서 확인할 수 없음.

33.②

▶(나)는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현대 남녀의 서로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

34.⑤

▶(가)만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5.④

▶(다) 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랑을 표정을 보고 읽어 낼 수는 없다고 하기에 '운영'은 사랑에 빠진 사람 특유의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님.

36.③

▶㉢은 중세와 관련되며, 개인이 중시되는 낭만적 사랑의 실체는 17세기 이후와 관련됨.

37.①

▶(가)는 과장법(천지가 다한들~않을 것입니다.)을 활용하여 상대에 대한 연모의 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38.⑤

▶㉣ : 사랑에 관한 과학자들의 생각인 것이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가 아님.

39.②

▶사랑만이 행동을 동반하기 인간의 감정 모두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님.

40.②

▶'김진사'와 '운영'의 만남은 '신분 계급의 구속 때문에

<<해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

41.④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의 의미는 본문에 언급되어 있기에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적절치 않음.

42.②

▶표정을 보고 사랑을 읽어 낼 수가 없기에 사랑으로 인해 표정의 생물학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님.

43.①

▶(가), (나), (다)는 모두 중심화제가 '사랑에 대한 관점'이다.

46.③

▶(가) : 현대인들은 사랑을 소모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 는 것이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

47.②

▶(나)가 해당 분야 권위자가 실험한 결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8.⑤

▶㉠ : 현대인들에게 사랑은 자아를 발견하는 '거울'이므로 랑의 대상을 찾아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함.

49.③

▶사랑하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운영'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50.⑤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한 현대인들에게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51.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승 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52.⑤

▶우리는 뇌 활동 연구를 통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온전하게 내릴 수 없음.

54.④

▶(라) : 결혼과 사랑의 의미에 대한 남녀의 다른 기대.

55.⑤

▶현대 사회의 사랑이 개인화에 의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더라도 사랑의 낭만적 요소는 존재함.

Ⅲ-1.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

1.③

▶최재천은 <모닥불과 개미>를 읽고 난 호기심은 시간이 지나 사회 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음.

2.②

▶<공부하는 능력, 다시 말해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겁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3.⑤

▶㉠와 ⑤는 <수준이나 능력 따위를 높이다.>의 의미를 지님.

4.②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음.

5.③

▶L. 전집의 독서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얻게 된다. C. 독서는 휴식의 일환이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임.

6.④

▶여러 분야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기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됨.

8.②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 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를 통해 알 수 있음.

9.③

▶맹모삼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

12.④

▶<독서 활동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음.

13.④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를 통해 알 수 있음.

14.①

▶㉠: 나열(<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 인용 ("반복적으로 읽 으면서~것 같아요.")

16.③

▶㉢사유: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 소유(所有): 가지고 있음.